



28일에 열린 다민족 연합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해 부르짖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치유를 위한 간구 울려 퍼졌다

2018 다민족 연합 기도회서 뜨거운 기도 합성 이어져

남가주 한인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한 번 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다. 10월 28일 오후 5시부터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HEAL OUR LAND 다민족 연합 기도회”에 참석한 한인 성도들은 한국 특유의 “주여 삼창”과 통성 기도로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부르짖었다.

특히 기도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부흥’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및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과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기도했다. CRU & Elim 연합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대회장 한기홍 목사의 환영인사로 이어졌다. 한기홍 목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서 미국이 다

시 한번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강력한 대부흥을 경험하고 거룩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돼 9시 30분이 넘기까지 계속됐다. 수개월 동안의 준비모임을 가지며 기도로 준비한 행사는 개회 찬양부터 은혜가 쏟아졌다. 먼저 ‘회개’를 위해 기도회가 시작됐으며, ‘부흥’과 ‘회복’을 놓고 기도가 이어졌다.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한 김철민 장로는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교회 회복을 놓고 기도한 윤대혁 목사

는 “교회마다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목회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했다. 생명 보호(낙태반대)를 놓고 기도한 샘 신 목사는 “미국에서 매일 3143건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했다. 또 선거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이끈 김한호 목사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동성애와 양성애를 가르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혼돈을 겪었을 것이 뻔하다”며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

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자”고 이끌었다. 또한 ‘차세대와 세계 선교’, 이스라엘, 중동, 북한, 일본, 남미 나라들을 위해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번 기도회에는 민경엽, 김우준, 윤대혁, 샘 신, 박형준, 서오석, 김한요, 김기동, 엄규서, 강태광, 조현영 목사 등 1세 목회자들이 기도회 강사로 참여했다. 또 David Andrade, Walter Tucker 목사 등 현지 사역자, 그리고 차세대 리더인 Sam Han 등 영어권 사역자들도 기도회 강사로 참여해 차세대와 선교, 대학 내 부흥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이날 히스패닉, 아프리카 아메리칸, 백인, 일본인, 대만인, 중동인, 유태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등 1300

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서 미국을 치유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물론 절대 다수가 한인들이었다. 한편 다민족 연합기도회 집행부는 2019년 기도대회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이번 행사 준비위원장으로 기도대회를 총괄한 자마(JAMA) 대표 강순영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기도대회를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며 “이제부터 다시 내년 기도대회를 준비한다. 우선 11월 15일에 있는 평가회를 통해서 금번 대회를 점검하고 더욱 발전적이고 감동적으로 2019년 다민족연합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한다. 교회, 목회자, 그리고 뜻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토마스 멩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나라

- 주일에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축수감사절 부흥회

“하늘의 권능 받아 땅을 정복하라!!”

일시: 2018. 11. 16(금) ~ 18(주일)
16(금) 7:30pm
17(토) 6:00am, 7:30pm
18(주일) 7:30am, 9:20 am, 11:30am, 2: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사: 이영환 목사(대전한발제일교회)

이영환 목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의 저자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림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일시: 2018. 11. 19(월)~20(화)
강의시간: 19(월) 9am~12pm, 2~4pm, 7~9pm
20(화) 9am~12pm, 2~4pm
장소: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
강사: 이영환 목사(대전 한발제일교회)
대상: 목사, 전도사, 신학생
등록비: \$50(교재, 식사포함), 미자립교회 목회자 \$30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p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 11965 Indian Truck Trail, CA 92683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개최

Bliss Youth Orchestra, 에버그린 여성합창단
OMC 남성합창단 특별출연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찬양단의 제 11회 정기 연주회가 10월 27일에 열렸다.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찬양단이 제 11회 정기연주회를 10월 27일 오후 6시에 세계야가페선교회에서 열었다. 찬양단 단장인 엄규서 목사는 “저희가 갖는 연주회는 단순한 찬양을 발표하는 공연이 아닌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의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

다”라며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고 병든 자가 강건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을의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목사 장로 부부찬양단을 통해 드러지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연주회에서는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찬양단이 ‘생명수의 생물’, ‘은혜 아니면’, ‘강

하고 담대하라’, ‘주님’, ‘예수 거룩한 이름’ 등 총 9곡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또 특별 출연으로 Bliss Youth Orchestra와 에버그린 여성합창단, OMC 남성합창단이 각각 두곡씩 연주 및 찬양으로 무대를 빛냈다. 이날 연주회 좌석은 참석한 청중들로 가득 메웠으며, 2부 시간에는 다과와 친교의 시간, 그리고 행운권 추첨과 선물 증정 순서로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했다.

창대장로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및 권사 임직식 거행 “주의 지상명령 감당토록 기도부탁”



창대장로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창대장로교회(이춘준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권사 임직식을 10월28일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기념예배는 사회에 이춘준 목사, 기도예 임영호 목사, 설교에 진석호 목사, 헌금 시간에 권지성, 권희지 남매의 클라레넷과 폴로 연주에 이어 ‘이런 교회되게 하소서’의 특송이 이어졌다. 이날 주찬양교회 진석호 목사는 ‘아름다운 교회’(골로새서 1:1-6)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이후 한승원, 권철균, 권마리의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있었다.

이춘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임직식에서는 김정수, 최순조 권사의 서약과 기도 이후에 권사 임직

이 선포됐다. 이어 임직패 수여 및 꽃다발 증정식 등 축하에 이어 이종식 선교사의 축사와 정삼희 목사의 권면이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찬송가 620장의 폐회찬양에 이어 정홍이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교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나눔선교회를 통해 멕시코 선교, 휴리스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북한교회 재건 및 북한목회 전략’ 세미나 열린다

30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남가주, 북가주 한인교회 순회 탈북민 목회자 초청 특강 및 좌담회

탈북민 목회자들이 초청돼 ‘북한교회 재건 및 북한목회 전략’ 주제로 특강 및 좌담 세미나가 열린다.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Mission.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8명의 탈북민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초청돼 남가주와 북가주 일대의 한인 교회들을 순회하며 강연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10월 30일 LA에 도착해 미주 평안교회에서 기자회견 및 주제 강연을 열었다. 31일에는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최홍주 목사가 ‘이민목회의 특성’, 동신교회에서 백정우 목사가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주제로 특강을 이끌었다. 1일 일정은 베델교회에서 송정명 목

사가 ‘이민목회 발자취’, 김인식 목사가 ‘디아스포라들의 의미와 역할’란 주제로 특강을 이끌었으며, OC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과 환영만찬이 있었다.

2일 일정은 산호세에서 지역 목사회 초청 환영 만찬회가 있을 예정이며,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특강이 이어진다. 3일에는 뉴비전교회 그리고 새누리교회 새벽예배에 참석하게 되며, 4일에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산호세누리교회, 조이플교회, 상향중앙장로교회,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뉴라이프교회에서 주일예배 설교를 하게 될 예정이다.

5일에는 다시 남가주로 돌아와서

베델교회에서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해주, 사리원 등의 교회 재건을 꿈꾸며’란 주제로 오픈 브레인 토론회 세션을 가지게 되며, 6일에는 ‘북한인권상황과 복음전파 전략’이란 주제로 특별 방송 간담회가, 손인식 목사의 ‘교회성장과 성령의 멘토링’ 주제로 특강이 이어진다.

7일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 북한선교팀 주최로 만찬 및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날까지 선교연합 관계자는 “탈북민 목회자들과 북한 복음통일을 위해 함께 나누고, 비전을 꿈꾸는 일정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성도분들의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LA지역 제3차 에드워즈 세미나

오는 11월 5일(월), 6일(화)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에드워즈아카데미 엘에이 주회로 갈보리선교회(심상은 목사)에서 제3차 에드워즈 세미나가 열린다.

에일대 에드워즈센터 연구원, 에드워즈아카데미 및 버지니아 크리스천 대학 객원교수인 정부홍 박사가 강사로 나서며 수강료는 40불(점심포함)이며 사전 등록시 10불이 할인된다. 문자로 성함 및 소속을 보내주면 된다. 문의는 한마음 제자교회 곽부환 목사(213-321-4433)으로 하면 된다. 강의를 5일 ‘에드워즈 가문, 교육, 결혼, 자녀’, ‘철학적, 과학적, 신학적 배경’, ‘부흥체현, 대각성 운동 및 선교’에 대

해, 6일에는 ‘에드워즈의 <자유의지>책의 배경 분석’,이 책의 철학적, 성경적, 교리적 분석’과 예증, 현실 적용, 영향’에 대해서 다룬다.

장소: 갈보리선교회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일정> 11월 5일(월) 10:00-12:00 에드워즈 가문 교육 결혼 자녀 1:00-2:00 철학적 과학적 신학적 배경 2:00-3:30 부흥체현, 대각성 운동 및 선교 11월 6일(화) 10:00-12:00 에드워즈의 <자유의지>책의 배경 분석 1:00-2:00 <자유의지>의 철학적, 성경적, 교리적 분석 2:00-3:30 <자유의지>의 예증들 및 현실 적용들 및 끼친 영향.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T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엘에이지역 제3차 에드워즈 세미나

어려운 시대를 에드워즈에게 배워 부흥하자

11월 5일 (월요일)
 10:00~12:00 에드워즈 가문 교육 결혼 자녀
 1:00 ~2:00 철학적 과학적 신학적 배경
 2:00 ~3:30 부흥체현, 대각성 운동 및 선교

11월 6일 (화요일)
 10:00~12:00 에드워즈의 ‘자유의지’ 책의 배경분석
 1:00 ~2:00 ‘자유의지’ 의 철학적, 성경적, 교리적 분석
 2:00 ~3:30 ‘자유의지’ 의 예증들 및 현실 적용들 및 끼친 영향

일자 11월 5일(월), 6일(화)
강사 정부홍 박사
 (에일대 에드워즈센터 연구원, 에드워즈아카데미 및 버지니아 크리스천 대학 객원교수)
장소 갈보리선교회 (담임: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대표 곽부환 목사
 (한마음제자교회 213-321-4433)
수강료 40불 점심포함
교재 ‘자유의지’ 새물결플러스

*사전등록 성함 및 소속을 문자해 주세요. 10불 할인됨. 여성 및 평신도 대환영

주최 : 에드워즈아카데미 엘에이

남가주순복음교회 취임한 이일 목사, “예수님께 올인했던 목사 이야기 듣고파”



왼쪽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이일 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이일 목사)가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28일 오후 5시에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담임목사로 새롭게 취임한 이일 목사는 답사에서 “먼저 부족한 종을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담임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진 못하지만 가까이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개인적 소원이 있다면 죽을 때 아니면 사역을 은퇴할 때 ‘예수님께 올인했던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성순복음교회에서 10년 가까이 풀타임 부교역자로 사역을 해오면

서, 진유철 목사님은 저에게 목회의 스승이고, 선배이며 멘토이다. 10년 가까이 진 목사님을 지책에서 모시면서 감히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뢰의 목회’라고 정의해 봤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세부리지 않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역하기를 소원해본다”라고 말했다. 이취임 감사예배는 사회에 안병준 목사(성시베데스다 순복음교회) 대표기도에 이선자 목사(순복음제자교회), 설교에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서약, 공포, 권면이 임현철 목사(북미총회 LA

지방회장), 축사에 이영규 목사(북미총회 증경회장), 답사, 감사패 전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남가주순복음교회 전임이었던 박재만 목사는 이날 이임됐다.

남가주순복음교회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예배를 꿈꾸며, 자녀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주님의 지상명령의 ‘땅끝’을 지리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문화의 경계 개념으로 재정의해서 전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이 “NGO에 대한 기본 이해”와 “선교적 전략으로서의 NGO사역”에 관해 강의했다.

최윤정 교수는 “한국교회 안에 개인의 제자화와 구원이 강조돼 온 반면 공적인 부분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공적신학은 약화되었다. 크리스천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NGO가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루이스 목사는 “낡은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다. 타이어가 구멍이 났고 페달이 달려있어야 할 자리에 쇠덩어리가 붙어 있었다. 그 정도만 있어도 제겐 충분했다”며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제가 살던 마을 광장에는 수박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사람이 있었다. 자전거를 속력을 내서 타다가 ‘수박 이랑 부딪치기 전에 바로 그 앞에서 피하면 되겠다. 수박 주인만 놀라게 해야지’란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는데 수박 하나가 깨졌고 주인은 저를 발로 밟으며 ‘네 아빠가 수박 값을 낼 거야’라고 했다. 아버지가 알뜰중독에다 폭력을 썼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깨진 수박을 주세요. 내일까지 수박 값을 갖고 오면 아버지에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주인에게 제안을 했다.”

“수박을 가져와서 반을 자르고 거기서 조그맣게 잘랐다. 동생들 되는 아이에게 갖다가 팔아달라고 했다. 2시간 후 주인에게 수박값 1불을 돌려주고 1불 85센트가 남았다. 그리고 주인과 다툼 했다. 11살 때 저는 비즈니스 맨이 되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저희 아버지는 농업을 했는데 저에게 소 한 마리를 맡기셨다. 그 소가 새끼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첫번째 열매를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야단 맞았지만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선물로 줬다. 13살 때쯤이었다. 17살때 아버지와 같은 수의 소를 소유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 가치를 세상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 크리스천의 사례를 소개하며 조건없는 도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략적 이유로 NGO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전략적인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고 생각한

다. 제가 아는 한 심리학자는 중국에 선교를 다녀온 결과 무신론자가 되었다. ‘선교를 다녀와서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지’ 묻자 그는 ‘저는 항상 중국인들은 이상숭배자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인간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답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으면 도움 생각을 안한다. 공감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다. 교회가 이야기 하지 않는 이런 가치를 세상에서 발견하고 무신론자가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단을 만든다. 캘리포니아 10번 프리웨이에서 Atheist United 라는 간판을 보았다. 무신론자들이 연합해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될까?”

“아침에 일어나 맥도날드에 가는데 텐트에서 잠자는 사람이 7명 정도 있었다. 여기에 건물 하나 구입해서 셀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한 인타운의 홈리스를 품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가 그 사역을 하면 엘에이 정부에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까 생각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지도 않고 성도가 늘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는 교회가 NGO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면, 교회에는 불리하지만 NGO에게는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 은행시스템을 보면 교회는 어느 단체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NGO를 열면, 은행에 전용 창구가 따로 있고 은행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위해 NGO 단체에 돈을 빌려주려고 노력한다.” 크리스천으로서 NGO를 통해 세상의 도전에 응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편 기자가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고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날들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대로 그대로 그날을 돌려드리면 안된다. 매일 일어날 때마다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일어난다. 그 날을 허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세계에 4개의 영적 전쟁이 있다. 첫째는 신앙. 다른 종교, 무신론, 휴머니즘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교회는 하는 일이 없다. 두번째는 우리들의 존재를 공격받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다음호에서 이어서

“NGO는 신앙적인 이슈들을 다루며 정체성 세우는 것”



루이스 모랄레스 목사(Vida Real Church)가 NGO를 통한 선교 전략을 소개했다.

월드미션 대학은 10월 23일(화), 25일(목) 오후 7시에 교회가 NGO를 통해 사역을 전략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GO와 선교 세미나’를 월드미션대학교 6층 오티토리움에서 개최했다.

25일, 월드미션대학 학생들과 여러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윤정 교수(월드미션대학교)가 “공적신학과 NGO”를 발제하고 루이스 모랄레스 목사(비다리얼처치 Vida Real Church, 하츠오브라이프 재단Hearts of Life Foundation 대표)목사가 “미국 내 라티노 교회의 NGO 사역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임진기 휴먼앤휴먼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원 할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 (949) 329-8222, (949) 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87>

터키(이슬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심을 깨닫다(3)

터키 이야기를 하겠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땅. 밧모섬이 있고, 사도바울의 선교활동의 발판이었던 땅. 또한 예루살렘교회의 핍박을 피해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웠던 안디옥교회와 에베소교회 등 사도행전의 주무대였던 초기 복음의 씨앗의 땅이 지금의 터키이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 비잔틴 문명에 이르기까지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가 고스란히 묻어 있던 나라였다. 그러나 13세기 일어난 오스만제국이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점령한 땅들은 속속 이슬람화 되었고 15세기에 터키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슬람의 나라로 바뀌고 말았다. 수도 이름도 이스탄불이 되었다. 정치, 경제, 군사력까지 갖춘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된 터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2007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 해를 시작으로 중보기도자들이 그 땅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2백 8십여명으로 시작된 연합중보기도가 2010년에 예배소에서 2천여 명으로 성장했고 그 후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매년 3천명 이상의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모여 연합 기도를 하고 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는 지역은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다. 그것을 터키당국은 막지 못한다.

2007년 말라티아 탈만 선교사 순교사건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터키 내에서는 강력한 기독교 탄압이 일어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 순교 이후에 하나님은 난민들을 움직이신 것이다. 터키 안에는 시리아 난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천의 이란 기독교 난민들이 그 땅에 와 있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라크의 야지디족, 쿠르드인 중심의 난민들 등 여러 민족의 난민들이 운집해 있다. 그들과 우리 중보기도자들, 선교사들, 선교단체들이 여러 갈래로 만나기 시작했다.

난민 대부분은 이슬람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다. 이슬람이 자기들의 터전을 다 무너뜨린 주범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두 갈래로 나뉜다. 종교를 버리는 이들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터질 것 같이 감격한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어붙은 이 땅에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방법으로 복음의 물꼬를 트신 것이다. 현재 터키와 이슬람권의 선교 최전방에는 한국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강력하게 사역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미주 한인에게 주신 이 소명을 반드시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 같은 기도를 강력히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들어 일을 하시는 데 그 주역이 시리아 난민들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리아 내전이 터졌고 수백만의 시리아 난민들이 아랍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특히 터키는 그들을 대거 수용하였다. 약 4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모였다. 터키는 정책적으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다른 민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들이 가

는 지역은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다. 그것을 터키당국은 막지 못한다. 2007년 말라티아 탈만 선교사 순교사건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터키 내에서는 강력한 기독교 탄압이 일어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 순교 이후에 하나님은 난민들을 움직이신 것이다. 터키 안에는 시리아 난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천의 이란 기독교 난민들이 그 땅에 와 있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라크의 야지디족, 쿠르드인 중심의 난민들 등 여러 민족의 난민들이 운집해 있다. 그들과 우리 중보기도자들, 선교사들, 선교단체들이 여러 갈래로 만나기 시작했다. 난민 대부분은 이슬람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다. 이슬람이 자기들의 터전을 다 무너뜨린 주범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두 갈래로 나뉜다. 종교를 버리는 이들과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터질 것 같이 감격한다.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어붙은 이 땅에 기도의 삼겹줄을 이루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방법으로 복음의 물꼬를 트신 것이다. 현재 터키와 이슬람권의 선교 최전방에는 한국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강력하게 사역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미주 한인에게 주신 이 소명을 반드시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아우구스티누스 행복학(2) ‘행복의 중요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생동안 행복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행복을 찾아 방황했습니다. 그가 33세에 소위 진리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그의 목마른 방향은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적 논리 체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향한 즉 영적 행복을 향한 목마른 여행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행복은 삶의 궁극적 질문이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철학의 정점이고, 신학의 중심주제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요 철학역사 학자인 길송(E. Gilson) 박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의 개념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중세철학의 대가인 길송(E. Gilson)박사가 바라본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찾다가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실천적 과제였고 신앙의 열매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서 그의 행복은 강화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발견과 그 행복의 강화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철학과 신학에서 행복이 중요한 이유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행복이 자기 인생의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일생의 과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일생은 궁극적 행복을 찾는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의 방향, 그의 학문 그리고 그의 경건의 끝은 행복의 항구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행복을 누리면서 그의 모든 방향은 끝이 났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그는 자신이 행복을 갈망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 추구’를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전쟁을 하는가?’ 라고 묻거나 ‘당신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예”도 있을 수 있고 “아니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은 “예”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면 모든 인생은 행복을 찾고 있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찾기’라는 모든 인생의 숙제를 발견했습니다. 행복이 일생의 과업이기에 행복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둘째로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행복을 발견한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던 그는 33세에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성된 그의 행복 찾기는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행복찾기는 결국 하나님 찾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발견한 행복을 나누고 싶은 열정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자신이 찾은 행복을 전하는 통로

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보니 행복을 찾을 때보다 더 행복의 중요성을 더 실감합니다. 행복의 비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386년 8월에 회심한 아우구스티누스는 386년 9월에 카시카아룸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행복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그 대화를 정리한 대화록이 행복론(De Beata Vita)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행복을 전하려고 행복을 강조합니다.

셋째 그는 행복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유한한 인간은 도무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영원을 맛보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이르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은 인간의 희망사항이자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행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행복(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새언약학교 목회자 · 선교사 자녀 위한 골프 대회 성료

NCA(새 언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해마다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연다. 벌써 7회째를 맞이해 지난 10월 27일에 제7회 Charity Golf Tournament를 성황리에 마쳤다.

27일 정오 웨스트랏지 골프장에서 열린 이날 골프 대회에는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총 135명이 참석하여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골프토너먼트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이번에도 많은 곳에서 광고와 협찬으로 도움을 줬다.

크리스천의 영성을 갖춘 차세대



새언약초등학교는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열었다.

리더를 세워 나가는 새언약초중고등학교(NCA)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가정들의 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자세한 문의는 학교로 하면 된다. 문의 213)487-5437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탈북민 목회자 (북기총 임원진) 남가주 목회 연수단 일정공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3만2천명의 탈북자 사회와 탈북민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탈북출신 목회자 8분(북기총 전, 현직 회장 포함)이 다음과 같이 남가주와 북가주 일대의 한인교회들을 순회하며 미래 북한교회 재건과 북한교회 목회전략을 이민목회자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와 축복을 보내주세요!!

2018년

- 10월 30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도착
- 10월 30일(화) 미주평안교회(임승진목사) 성시화본부 주관 환영만찬 및 기자회견: 장소 - 미주평안교회(임승진목사)
만찬및 특강: "북한교회 재건및 목회전략" (탈북목회자 중 3인) 간담회: "탈북민교회 목회와 미주 이민목회의 이민목회 공통성"
- 10월 31일(수)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목사) 특강: 이민목회의 특성(최홍주목사)
동신교회(백정우목사) 특강: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백정우목사)
참관: 동신교회 주일학교(할렐루야 나이트)
- 11월 1일(목) 베델교회(김한요목사) 특강: 이민목회 발자취(송정명목사)
특강: 디아스포라들의 의미와 역할(김인식목사)
환영만찬(연규호장로택 베다니홀) OC지역 목회자 / 평신도지도자 메세지: 송정명목사(성시화운동 본부장)
- 11월 2일(금) 오전 산호세 국제공항 도착
- 11월 2일(금) 산호세지역 목사회 초청 환영만찬회(주관: 위성교목사)
장소: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배목사)
특강: 북한교회 재건및 목회전략/ 탈북민목회와 이민목회
- 11월 3일(토) 새벽예배: 뉴비전교회(이진수목사) / 새누리교회(손경일목사)
산호세 지역과 금문교 일대 휴식과 관광
- 11월 4일(주일) 주일예배 설교 사역
마요한목사: 산호세 은누리교회(김영련 목사) - 사62:1-7 '하나님의 통일'
송신복목사: 조이플교회(이상준 목사) - 출32:32, 롬9:3 '동족을 위한 목숨거는 기도와 헌신'
김진 목사: 상향 중앙장로교회(권혁천 목사) - 눅 5:1-11 '어부의 새 출발'
김관능 목사: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이강웅 목사) - 시102:17-22 '갈렐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김이진 전도사: 임마누엘 장로교회(손원배 목사) - 민 14:20 '설득하라'
송해연 목사: 뉴라이프 교회(위성교 목사) - 렘2:14 '막힌담을 허신 하나님'
강철호 목사: - 시126:1-6 '이민족의 회복을 준비하게 하소서'
- 11월 5일(월) 오후 산타아나 공항 도착
- 11월 5일(월) 미주복음방송 특별 방송간담회 - "북한 인권상황과 복음전파 전략" (탈북민 목회 연수단 전원)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해주, 사리원... 등의 교회 재건을 꿈꾸며!!..."
--- Open brain-storming session
장소: UTD 사무실 (7:00pm)
참석: 복음통일을 꿈꾸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께 open!!
- 11월 6일(화) 특강: "교회성장과 성령의 멘토링" (손인식목사)
- 11월 7일(수) 친지방문, 개인별 자유시간, 식사초대 참석 등
만찬및 간담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북한선교팀
- 11월 8일(목)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



마요한 목사 강철호 목사 김진 목사 김관능 목사 송신복 목사 송해연 목사

주관: 그날까지 선교연합(UTD-KCC Missions)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김경길 목사 김인식 목사 한태일 목사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고린도전서 2:6-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고린도전서 2:6-14

우리는 설교를 어느 곳에서나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포장만 하나님의 말씀일 뿐 그 속에 사람의 생각과 편견을 피력하는 사람의 말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이 “때가 이르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3-4)”했습니다. 지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 말, 행동으로 거듭나고 성숙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사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자기 입장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귀를 소망적으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말과 사람을 찾아서 좇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온전한 자들’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중에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그 시대의 관원들조차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유대인 관원들이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나 또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사,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든 장본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구약성경을 외우다시피하며, 남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는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려고 했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신앙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조목조목 지적해 가면서 일곱 번이나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시키실 목적의 경영은 어떻게 알게 해주실까요? 본문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귀로도 들어 알아

차릴 수 있는 곳도 아니며, 또 믿음으로 연구해서 짐작할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계획과 비밀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다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되고 억울하고 괴로운 입장을 누군가를 붙들고 호소하고 하소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걸기 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그 모든 상황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사정과 형편, 처지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 억울하고 불행한 것을 당하는 원인까지도 다 알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5-6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 침상을 적시고,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신령한 소망에 대하여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실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16-17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진지 알리라”했습니다. 이것은 본문 13절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함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그 말하는 의도와 목적이 자신의 명분과 이속을 쟁기자는 것으로 귀착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람이 제멋대로 떠드는 말인지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모으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단사설이 너무나 난무하는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18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고 그 분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6-9에 “가라사대 이 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도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했습니다.

이사야 29:13-14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여 박사학위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가르치는 말에 신앙인으로서 기대 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없애지게 만드셨고 명철과 총명이 가리워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말씀의 거울로 잘 비춰질 때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생

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리어 쓰임받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생각만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지 생활은 세상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욕심 부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원수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지독하게 고집부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계속 육에 속하여 살다가 지옥가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이 생기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기운 없고 힘들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하신 구속 사역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회개(悔改, repentance)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황금기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제1회 선교박람회 MISSION EXPO



“선교는 기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소중한교회 선교운동(소형교회+중형교회+한인교회)

선교박람회 목적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 소중한교회선교운동 (소형+중형+한인교회 선교운동)
 황금기선교사(은퇴한분들) 발굴, 동원, 파송 선교사와 성도들의 직접 만남 선교지의 실제 필요한 인력동원

INVITATION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선교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30개국 100명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기회를 알려드립니다.

초대합니다.

꼭! 오십시오!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9AM ~ 7일(수) 6PM

장소 :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관 : KWMO 한인세계선교기회운동

주최 : SON MINISTRIES / GMAN

문의 : kwmo4u@gmail.com Tel : 714-350-6957

■ 대회장 ■ 대회고문

한기홍 목사 최찬영 선교사 김민희 목사 이재환 선교사

■ 준비위원장 ■ 공동준비위원장

김정한 선교사 박희성 목사 조현영 목사 노경애 목사 주역로 목사

박람회 찬양 전야제
 (주님의발걸음)
 04일(주일) 오후 4:00 ~ 8:00

아침경전기도회
 (세계기도센터)
 05(월)~07(수) 오전 8:30 ~ 9:00

KWMO 창립예배
 (세계기도센터)
 07일(수) 오전 8:30 ~ 12:00

선교포럼
 (세계기도센터)
 05(월)~07(수) 오전 9:00 ~ 10:20

농축산 포럼
 (웨딩채플)
 07일(수) 오후 2:00 ~ 6:00

선교박람회
 (정원)
 05일(월)~06일(화) 오후 1:00 ~ 9:00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췌장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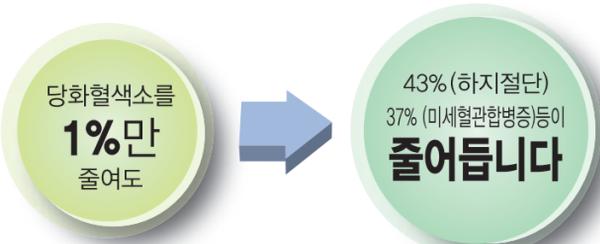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월드비전 메들리 피어스 여사(우)와 통역하는 최수진 사모

“월드비전 사역, 이제는 전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전해”

“지금 한국은 전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으로 200만 명이 사망하였고, 수만 명의 고아들과 노숙자들과 백성들이 배고픔에 빠져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어린이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집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난민 그리고 기본적인 약조차도 사용할 수 없어 고통 받는 환자들과 특별히 나환자들이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쟁 고아들과 남편 잃은 부인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 월드비전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구호 단체로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WorldVision)의 설립한 밥 피어스 목사의 딸인 메들리 피어스 여사는 지난 21일,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 주일예배를 인도하며 월드비전의 설립과 목적, 사역과 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통역은 최수진 사모가 맡았다.

피어스 여사는 “아버지 밥 피어스 목사는 예수님을 따라 살며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청년 목사였다”며 “아버지는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볼 때마다 항상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전쟁이라는 어두운 시간 동안 월드비전을 설립해 수 많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다”고 회고했다. 또 “당시 영락교회 환경직 목사님은 아버지의 통역으로 도우시며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억했다.

피어스 여사는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고통이었다”며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 받는 고아와 난민들을 돌보는 것으로 월드비전은 입양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

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중요하며, 그들이 미래의 희망이요,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자라나고 성장시킬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같은 책임감으로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이티 그리고 아마존까지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는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재난, 국가적 비상사태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옆에 월드비전이 항상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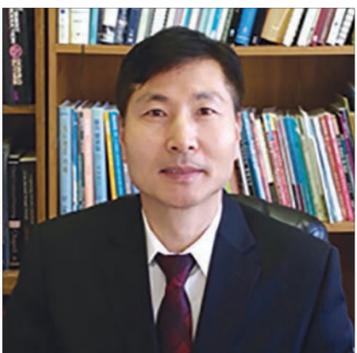
습니다.” 피어스 여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약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2.5달러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70만 명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월드비전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물을 파는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월드비전의 사역에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을 돕기 위해 시작된 월드비전은 현재 100여 개 국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 구호개발기관으로 성장해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구호개발 활동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자연 재해나 전쟁이 발생한 지역의 피해 주민과 난민의 생명을 구하는 ‘국제 구호사역’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고 빈곤은 퇴치하는 ‘지역 개발 사역’, 어린 소녀들이 학교를 마치지 못한 채 조혼을 강요당하거나 어린이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는 사회의 잘못된 통념이나 부당한 정책 및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옹호 사역’ 등을 펼치고 있다.

폴 원 기자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성종근 목사,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달려간다



성종근 목사

교회 건물 안쪽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깊은 은혜의 세계를 탐구하던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성종근 목사를 만났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까지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왔지만, 성종근 목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설교가 성도에게 감화되어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기도한다. 광주 중앙교회에서 신앙을 키워온 그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전남대학교 교육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결국 부르심에 순종해 목회자의 길을 택했다.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좀 더 깊은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길에 올라 비브리칼 신학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에서 각각 신학석사와 목회학박사를 마쳤다. 또 동부 메릴랜드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5년 전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담임으로 취임했다.

“이민 목회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

보면 기쁨의 열매와 감격의 순간을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자신의 설교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에 더욱 가깝게 접근하고 말씀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길을 찾게 됩니다. 또한 어떤 교회든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데, 회복과 치유의 시간은 짧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수 많은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목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능력 밖의 일들도 많아서 주님께 밤낮없이 매달려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길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향하여 달려다 보면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기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 목사는 “한인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목회자가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독의 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과 천국 시민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를 향해 나아간다”는 반석장로교회의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된다.

타코마 반석교회 웹사이트
http://www.tbansuk.org

폴 원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말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혼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말예배 - 비폴중학교 (7)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위한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화하는 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산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말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유초등부 오전 11:00 6:00 (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토) 오후 1:00
유년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정병도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304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전 12:15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s.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s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말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7: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전 12:15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리셋(매일)예배 (스캐버리)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영육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라디오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6: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유초등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을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도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힘쓰고, 친교의 힘, 바른교회관의 힘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한국교회 위기의 내·외적 원인과 극복 방안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바른 목회' 주제로 정기논문발표회



발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27일 경기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에서 '위기 시대의 바른 목회'라는 주제로 제 72차 정기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강사로는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은퇴,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와 이정의 목사(신촌교회 원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가 나섰다.

◆성경으로 돌아가 근본 찾아 세우는

먼저 이날 발표회 주제와 같은 '위기 시대의 바른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정주채 목사는, 우선 오늘날 목회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외적 위기'의 요인으로 △인구감소 △경제성장 △대체종교의 발달 △교회의 교만 △다원화 사회를 꼽았다.

이어 '내적 위기'의 요인으로는 △목회자의 과잉 배출과 질적 저하 △대형교회 목사들의 대형사고 △교회 분열 △이단 종파들의 득세를 들었다.

그러면서 정 목사는 '더 근원적인 문제들'을 분석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주된 심에 대한 신앙 약화는 모든 약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인본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가 모두 여기서 나온다"며 "특히 이것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추락시켜버렸고 신자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 목사는 또 "목회자들은 자기 목회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혈안이 되어있고 성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설교나 전도를 장사하듯 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목사나 교회들이 교인 수를 과장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이런 확신이 있어야 중

교 다원주의와 인본주의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목회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생계수단으로서의 목회는 그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자들처럼 전적인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성경적 교회론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대형교회를 지양하고 분립개혁을 통해 건강한 중소형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평신도 사역자의 양성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세상이 변할수록 오히려...

이어 발표한 이정의 목사도 정 목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성장 우선주의 △세속화(대형화, 제도화, 교과주의) △권위주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점의 배경에 '목회자의 리더십'이 있다고 했다. "목회자의 빈곤한 영성, 도덕적 타락,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용되는 잘못된 권위주의와 강단의 언어폭력이 교회의 영성과 분위기를 물론 교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세상이 변화해 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공허함, 고독함,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목양의 본질을 회복할 때, 미래 사회의 불안 속에서 힘들어 하는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미래는 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연-한교총, 11월 16일 통합총회 개최한다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가구 통합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16일 오전 11시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기연과 한교총 측은 28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합 세부합의서'에서 명했다. 이 자리엔 한기연 측에서 이동석 목사(대표회장)를 비롯해 권대진 목사(상임회장), 정서영 목사(증경 대표회장), 송대섭 목사(공동회장), 김효종 목사(공동회장)가, 한교총 측에선 전계현·최기학·전명구·이영훈 목사(이상 공동 대표회장), 신상범 목사(통합추진위원장)가 참석했다.

합의서는 아래와 같은 총 10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 주요 내용은 △3인 공동 대표회장을 선출하되,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는다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가정 한국기독교연합으로 한다 등이다. 아래는 10개 항 전문.

1. 통합기관의 회원은 공 교단으로 하며, 현재의 회원단체와 협력단체는 별도의 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그 대표 1인에게는 공동회장직을 담당하게 한다.
2. 한기연의 법인을 통합하는 기관의 법인으로 하되, 기본재산 총당을 위해 현재의 이사와 한교총에서 추천한 이사 공히 1천만 원을 선 부담하며, 한기연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정비한다.
3. 현재 한기연이 법인 설립시 발생한 부채와 통합된 기관의 운영비는 공 교단의 회비 등의 부담으로 충당하며, 부족분

은 신임 회장단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4. 통합 이전의 기존 부채는 통합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기관에서 각각 청산한다. 단, 한기연의 청산 비용은 9천만 원 이내에서 통합총회가 부담한다.

5. 각 기관의 직원은 합의서대로 전원 승계하되, 통합시점으로 퇴직금을 청산한 뒤 고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며,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한다.

6. 지도체제는 합의서에 따라 3인 공동 대표회장을 선출하되,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아 책임 경영한다. 공동대표와 대표회장의 선출방식과 선임은 사전 합의한다. (임원인선규정은 한교총의 규정을 원용한다. 단 통합총회에서는 한기연에서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해 3+1로 하고, 한기연에서 추천하는 분은 전현직 교단장 중에서 한다.)

7. 사무실은 한교총 사무실을 사용하며, 양 기관의 기존 사무실 임대료 등은 통합 이전 정산 완료하여야 한다.

8.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가정 한국기독교연합으로 한다.

9. 위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운영은 이사장 겸 대표회장을 포함한 대표회장이 공동대표들과 협력하여 처리한다.

10. 이 합의에 따라 한기연에서 11월 16일 이전 총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이어 11월 16일 오전 11시 통합총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11월 3일 사무실을 이전, 합병한다.

김진영 기자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찬양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가)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새움 받아 함께 할거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장주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시 2부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6:00
토요찬양회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경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 유년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 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오명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박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5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최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5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격 난사 사건으로 인해 11명이 사망했다. ©CBS NEWS

미국 기독교계, 피츠버그 회당 총격 사건 애도

“이 사건은 예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미국 교계 지도자들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면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남침례회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유대인을 싫어하면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슬프게도, 매주마다 이 나라에서 더 많은 유혈 테러가 일어나는 시기에 이러한 사건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냉철한 생각 없이 뉴스검색을 계속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치 민족주의의 부활이 연상되는 세상을 바라볼 때 특히 그렇다. 그 중 많은 것은 반유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종류의 편협과 증오에 대한 거부감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특히 반유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반유대주의’들이 아니다. 유대인을 증오한다면 예수를 증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 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총격 사건 직후 페이스북 북에 기도를 요청했다. 그는 “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츠버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 총을 맞았는데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게 최종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증오 범죄의 희생자와 살해당한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악의적인 살인 행위는 절대 악이며 믿을 수도 없

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고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하며 “피츠버그 회당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글을 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음주의 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조지아에 위치한 프리채플 담임 제네펠 프랭클린 목사는 ‘전 미국이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오늘 전 미국이 피츠버그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길 간청한다. 모든 믿는 자들은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우리 민족 역사의 특징이며, 모든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신념과 예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무고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 전체가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면서 “이 나라에서 예배당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인도주의기구 ‘REDEEM’의 대표이자 뉴욕 브롱스의 인피니티 바이블 처치의 목사인 빌 데블린 대표는 “어제 아침 죽음과 폭력은 예배당에 들어갔다. 피츠버그 회당에 대한 공격은 모든 미국인들에 의해 비난받는 비겁한 행동이며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CP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어 그는 “피츠버그 총격 사건은 계속되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공격을 매우 냉혹하게 상기시킨다. 불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증오에서 유럽, 미국에 이르기까지 반 유대교, 반 섹슈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피츠버그, 미국 및 전 세계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모든 폭력 사태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 연합감리교회 최고 법원, 동성애 입장 수정 ‘합헌’ 판결



©FACEBOOK/UNITED METHODIST GENERAL CONFERENCE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최고 법원이 교단의 동성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바꾸는 계획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UMC는 LGBT 문제에 대한 교회 입장과 관련한 내부 토론을 끝내기 위해 내년 2월 특별 총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지난 26일 논쟁을 끝내기 위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세 가지 주요 모델의 합헌성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교단 내 지역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교회 모델’(One Church Plan)과 관련해 사법위원회는 대부분의 청원이 합헌이라고 결론지었다. ‘하나의 교회 모델’은 교리와 장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언어가 삭제되고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 아니면 ‘두 사람’의 결합으로 선택할지에 대해 각 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 주례는 목회자 개인의 결정에 맡기게 된다. UMC 사법위원회는 “총회는 균일하고 표준화되거나 혹은 비 균일하고 차별화된 신학적 선언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은 총회에 의해 제정된 모든 교회 정책이 통일된 것이 아니라 모든 통일된 교회 정책이 총회에 의해 제정될 것을 명령한다”고 ‘결정문 1366’을 통해 밝혔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결정문에는 교회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받은 청원서가 몇 건 있었다. 예를 들어 ‘청원서 8’은 동성결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성직자의 재배치와 관련,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은 주교에게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같은 판결문에서 사법위원회는 UMC의 현재 LGBT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고 엄격한 집행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모델’을 지지하였지만 많은 청원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미경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골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net.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트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잡고 오영이외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초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학생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백린예배 오전 6: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셀가옥 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유, 초등부예배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영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z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포를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 초, 중, 고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하나님이 주신다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인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창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령 영회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c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목)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미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유진 피터슨, 성경에 뿌리 둔
묵상과 수려한 문장...”**

박영선 · 전성민 · 러셀 무어의 유진 피터슨 이야기



유진 피터슨. ©복있는사람 SNS

지난 22일 “Let’s Go!”를 외치며 하늘로 간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 1932-2018)을 추모하는 ‘메시지’들이 SNS를 통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출판사 복있는사람 SNS에 따르면,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원로)는 “명분은 있으나 실력은 없고 이상은 있으나 현실이 없던 시절, 유진 피터슨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었다”며 “위험과 도전의 세계인 신앙 현실이 결국 깊이와 무게를 담은 구체적 승리의 터전이 된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었다.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짧고 목직한 글을 남겼다.

눈에 쉽게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일치의 삶’(congruence of life)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것은 이 삶에서 순간적으로 일별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일치하는 이 우주의 핵심에 있는 신비에서 비롯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처럼”이라고 전했다.

해당 SNS는 『입양의 마음』, 『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가』 등을 쓴 러셀 무어 목사(서던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석좌교수)의 TGC 기고문도 번역 소개했다. 러셀 무어 목사는 “피터슨의 부고를 접하면서, 설교자이자 목사이자 작가였던 그를 추모하는 말로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한 설교만 하는 사람이었다’며 “피터슨에게는 어떤 강력한 비전, 무언가 끈질기고 일관된 것이 중심에 있었고, 바로 그것이 그의 설교와 글을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무어 목사는 “유진 피터슨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분명, 그가 지금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경위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파편적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을 것”이라며 “그는 자신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남기고 떠났다. 그리고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한 길 가는 순례자의 모범과 한 무더기의 책을 남겨 주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남긴 것은 하나의 설교다.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무어 목사는 “피터슨의 그 ‘한 설교’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나라면 그것을 ‘성경 이야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상상력에 말을 걸고 재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메시지’라고 정의하겠다”며 “이 말은 피터슨이 하던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적었다.

전성민 교수(VIEW)는 자신이 지난 2010년 9월호 <목회와 신학>을 통해 유진 피터슨 목사에 대해 소개했던 글 ‘현실에 뿌리내린 성경적 영성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유진 피터슨’을 재게재했다. 전 교수는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읽을 때면, 성경에 뿌리를 둔 그의 묵상과 수려한 문장에 매료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글을 좋아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가 말하는 바를 현실과 공동체 속에 체화해 볼 마음을 먹으면, 그의 문장이 수려할수록 그의 묵상이 성경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수록 그의 이야기를 우리 삶과 한국교회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급진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피상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며 살다가 본질과 충돌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당혹감, 그것이 우리가 유진 피터슨을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터슨이 쓴 책 중에는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유명한 『메시지』 성경도 있고, 예레미야서(『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에서부터 요나서(『목회자의 소명』) 그리고 요한계시록(『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연구한 책도 있고, 목회와 소명에 관한 책도 있다”며 “이 책들은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게 없다. 성경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고, 개인과 회중의 심리와 관습을 간파한 적용이 들어있으며, 평생 소설과 시를 읽어 온 그의 독서력이 그 안에 녹아 있다. 그러나 피터슨의 글이 다양한 이유는 자기 소명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점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글을 시작하면서 말했듯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뿌리는 둔 일상의 영성은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며 “세속과 신앙을 분리하고, ‘평신도’와 ‘목사’를 차별하고, 위엄 있어 보이는 종교적 언어 가운데 일상의 언어가 질식하는 한국교회가 유진 피터슨을 좋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피터슨의 대표작 두 권(『현실,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물총새에 불이 붙듯』)의 원제는 제라드 매리 홉킨스의 시를 연상시킨다. 피터슨은 그 시가 우리

고 전했다. 이어 “엘라베마 주 형법에 따라 태아의 삶의 가치는 태인의 삶의 가치보다 낮지 않다. 재판부는 이 나라가 평등한 보호 하에 설립되었다는 추가적인 주석을 달았다. 모든 사람의 정당한 절차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엘라베마 대법원, 태아도 ‘인격’ 인정 판결

미국 엘라베마 대법원이 최근 태아의 인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과 반대되는 결과다.

그는 “따라서 본 법원은 태아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당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달한 상황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엘라베마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임신한 아내와 뱃속에 있던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제시 리벨 필립스에 대해 최근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따라서 본 법원은 태아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당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달한 상황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을 내린 마이클 불린 판사는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살인 사건 희생자 중 한 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톱 파커 판사 역시 판결문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법적 예외 및 논리적 오류”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대법원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고립된 예외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그림 그리기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나의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서 때로는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농구를 맘껏 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속상했던 것도 이제 먼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공 가지고 노는 나의 모습에 아내가 실망한 듯 옛날 날렵하게 뛰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영거주춤하고 있나고 한마디 날립니다. 이미 몸은 한물갔다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주위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은 나의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양복 입는 나의 모습을 보며, 키가 줄었다고 하지를 않나, 옷이 커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옷의 유행이 바뀌었나 보다 말할 상황에서, 지금은 내 몸이 늙었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맘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여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갱년기가 남자에게도 비슷하게 찾아오나 봅니다. 그러다가 캘리그래피(Calligraphy)를 취미 삼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오랜 시간

책을 읽고 몸이 빠근할 때, 기분전환 겸 글씨를 모양내기 시작했는데, 재미가 솔솔 합니다.

나이가 든 증세 중의 하나가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 키우던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든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든지... 해보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도전해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일 것입니다. 저는 글씨를 쓰면서 늦게 배운 도둑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구절을 이 모양, 저 모양 흉내 내며 써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글씨와 함께 삼화도 한 개 두 개 그려보면서 그림 그리기도 재

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캘리그래피와 그림을 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신 건강상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당분간 더 해보려고 합니다.

문득 예수님에게도 취미 생활이 있었다면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목사님처럼, “내 취미는 심방과 기도야” 하실지, 어린 시절 성전에 계신 줄 모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일을 생각하면, “교회에 내 취미야”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간혹하던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팽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던 것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도 캘리그래피를 하실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요즘 별을 보는 취미를 시작했다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별 신기한 취미도 다 있다 싶었는데, 그 친구 말하기를 “50 평생 살면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며 마치 중생을 경험한 자의 감격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 한 것은 사물을 보는 나의 눈이 점점 변하고 있고, 그림을 뜯어 보듯 감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눈 뜨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는 지난 주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 중 하나가 로또 한 장의 이야기였음을 기억한다. 이번 로또는 미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금액 이었다고 한다.

나는 며칠전 뉴스를 통해 사람들이 한 주유소에서 로또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장시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목을 놓아 기다리는가 생각해 보았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올 기회를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회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 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렇다, 기회는 내가 노력하고 애착을 가진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심히 물리적인 힘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총동원 해보지만 결과는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많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잠을 즐기고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쉬는 시간을 줄이면 시간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쓰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나 아브라함의 오랜 광야 생활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 인생의 목적이 단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보낸 시간은 어찌 보면 헛된 시간이 아닌가?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동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오랫동안 열심을 다해 작업한 것들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나에게는 예전과 다른 더 크고 광대한 미래가 열릴 수 있게 됨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회는 나로 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허무한 결과라고 생각 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다가 올 수 있음을 기대해 보라. 나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포기함이 옳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히려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오늘도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놓아 보자. 그의 음성이 이해가지 않는 결정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의전서열 1번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

공적인 예식에는 거의 다 불문율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리에 앉을 때에 의전서열에 의거하여 앉습니다. 이러한 의전 때문에 서열이 정해지고, 어떤 사람은 좌석의 서열에 불만을 품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행사 때에 자리를 뛰쳐나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에도 의전서열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의전서열 1번은 대통령, 2번 부통령, 3번은 해당 주의 주지사, 4번은 하원의장 그리고 5번은 대법원장입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의전서열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전서열 1번은 대통령, 2번이 국회의장, 3번은 대법원장, 4번은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5번은 국무총리입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나 국내예식에서 의전서열을 정하는 관례는 매우 까다롭고 치밀합니다. 이러한 예식에 결례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행동을 하고 배려하는 것이 전문적 외교관이나 해당 프로젝트별들의 업무입니다.

2,000년 전 유대에도 지금처럼 서열을 의식하는 “의전서열 중독증”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벌어진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모임에서 서열을 의식하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회

들이 서로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눅 14:8) 하셨고, 이어서 초청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눅 14:10)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베푸신 예수님은 종말에 있을 큰 잔치에 비유하여 천국 가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잔치를 위하여 주인은 미리 약속을 초청대상자에게 알리고 “참석허락”(RSVP)를 받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임박하여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참가를 약속했던 사람들은 일처하게 발을 사거나, 소 다섯 겨리를 사거나, 장가들었으니 가지 못하겠

다고 사양합니다.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은 노하셨습니다. 그는 종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은 것을 안 주인은 도시 외곽의 도로와 시골로 향하는 길까지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눅 14:23)고 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재하실 천국잔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서열과과라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할 것입니다. 지상의 의전서열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소용이 없습니다. 연공서열이나 장유유서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서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의전서열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종말의 잔치를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세상의 서열에 크게 신경을 쓰거나 유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서열은 잠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의전서열의 가장 높은 분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였으나, 십자가의 가장 낮은 서열을 취하였습니다. 그분의 낮아짐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번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제)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M미션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동부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캘리포니아 LA 동부에 위치한 동부사랑의교회(East Sarang Community Church)에서는 2대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미국 장로교(PCA)에 소속된 교회로 2007년 개척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다음세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자격요건

- 1. 정규신학대학원 졸업한 분(M.Div)
- 2. 미국 장로교(PCA)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 3. 5년 이상 full time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미국 또는 한국)
- 4. 미국 체류 신분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최종 신학교 졸업증명서
- 4. 목회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 5. 자기 소개서(성장배경, 신앙간증, 소명, 목회경험, 사모 및 가족소개)
- 6. 1년 이내의 설교 2편(DVD와 동영상 링크 주소)
- 7. 3인의 목사 추천서(추천인이 빠진과 함께 escpc2@gmail.com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

2018년 12월 2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제출 방법

- 1.우편 제출처
동부사랑의교회 청빙위원회 / ESCC Pulpit Committee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 2.이 메일 제출처 (escpc2@gmail.com) / 이 메일로 보낼 시 PDF 파일로 작성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부사랑의교회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주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전화: 909-590-3722(ESCC) web: www.eastsarang.org

캐나다광림교회(벤쿠버)에서 담임목사 청빙

자격요건

- 1. 감리교단에서 인정된 대학졸업 후 신학대학원(M Div.) 졸업
- 2. 이민 목회 또는 해외 선교사 경력 3년 이상
- 3. 감리교 소속 정회원 5년급 이상
- 4. 연령 만 55세 미만
- 5. 교회법, 사회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3. 목회 비전과 신앙간증서
- 4.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5. 소속교단 재직증명
- 6. 목사안수증
- 7. 추천서(목회자) 2개
- 8. 최초 6개월 이내 설교 2편 (동영상파일 or 음성파일)

제출처

서류 제출처:
15678 106A Ave Surrey, BC, V4N 1K4 청빙위원회 앞
Email: kmcsarang@gmail.com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5일(목)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Email: kmcsarang@gmail.com
Phone: 604-951-1414 / 604-813-5724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NYTS는 1900년 뉴욕에 설립된 ATS정회원 학교 입니다.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Korean D. Min Program): 정원15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1차수업: 2018년 12월 17일(월) - 12월 21일(금) | 40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2차수업: 2019년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 40시간
 3차수업: 2019년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40시간
 4차수업: 2020년 6월 15일(월) - 6월 19일(금) | 40시간
 5차수업: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18일(금) | 40시간
 6차수업: 2021년 5월 31일(월) - 6월 4일(금) | 40시간

학위수여식: 2021년 6월 5일 *6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말라위에 주신 복이 터져 나올 것”

18년 중국선교 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말라위. 최재노 선교사



최재노(최비물) 선교사, 아내 공선화 선교사, 딸 최지원. 11월 5일-7일 GMAN 주최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제1회 선교박람회를 위해 LA를 방문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위. 인구 약 1780만 명에 1인당 GDP가 380달러에 불과한, 세계 3대 최빈국에 속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의 기독교인 비율은 80%에 이른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한국 선교사에게 이렇게 묻는다. “우리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는 100년 전이나 150년 전이나 똑같은 상태인가. 우리는 왜 굶주리게 됐는가.”

이에 “가난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말라위를 쓰실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말라위에 주신 원래의 복이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답하는 선교사가 있다.

최재노 선교사(북서진선교회 North West Mission 대표), 그는 말라위로 가기 전 18년간 중국 가정교회를 세우고 중국 목회자들을 교육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추방된 후에도 중국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인천에서 중국 근로자들과 중국 유학생들을 가르쳤다. 그가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말라위로 건너 간 건 2012년. 그와의 인터뷰는 중국과 말라위라는 그 먼 두 나라의 연결고리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됐다.

-아프리카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나요?

중국에서 평신도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산을 다 나누고 전임사역을 시작했다. 칭타오에 본거지를 두고 환경이 열악해 아무도 선교하러 가지 않

는 서쪽으로 가는 한족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2007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프리카로 가라.’ 다음해, 그 이듬해에도 말씀하셨지만 안갔다. 2009년 3월, 공안들이 포위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 목회자, 학생, 성도 몇 백명을 잡아갔다. 그리고 8일만에 중국에서 강제추방 당했다.

하지만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인천에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재교육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다. 결국 회개하고 비참할 정도로 빈손으로 갔다. 아프리카로 가면 후원을 잘 해주실 줄 알았는데 후원이 다 끊어져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머느리카드를 빌려 비행기 티켓을 사서 말라위로 가서 거적대기를 깔고 잤다.

-월드미션대학과는 어떤 관련이 있으신가요?

목회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신학교육을 해야 하는데 정규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말라위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 그러던 중 외국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월드미션대학을 통해 신학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올해 7월에 교수님들이 방문하셔서 보름동안 인턴십 코스를 강의를 해주셨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말라위에 있는 월드미션 학생들

에게 등록금의 70%는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30%는 내야한다. 현재 10명을 모집했고 한 명당 한 학기에 1200달러, 일년에 총 2,400달러가 필요하다. 말라위가 아프리카 최빈국이기에 때문에 이 금액을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어 학생들을 후원해 줄 후원 교회나 개인을 찾고 있다.

-주로 말라위 어디서 사역하시나요?

원주민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다. 처음에 집이 없어 폐가를 하나 빌렸다. 다 무너지고 문짝도 없고 방이 9개 짜리 아주 낡은 집을 헐값에 임대해 청소하고 수리해 목회자 세미나를 했다. 그렇게 한지 3년 반만에 한 장로님이 5만평의 땅을 사주셨다. 또 포항의 로타리클럽에서 우물을 파주셔서 주변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마실 수 있게 됐다. 마침 그 옆에 전봇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사 하라고 한 신도’란 생각으로 건축을 시작해 약 3억 정도 건축비로 센터를 세우고 농촌으로 들어갔다.

-사역을 소개해 주신다면.

태양광 사역, 한동대학교 적정기술팀과 협력해 버섯사역을 하고 있고, 의료, 우물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우기인 11월 말경 부터 3월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그 외에는 한 방울도 안 온다. 보슬비조차 안 온다. 우기때도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땅은 금새 메말라버린다. 우기때 잠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 먹고 그 다음에는 굶는다. 농사를 일년내내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다. 우물을 파서 물을 나눠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학교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학교도 세울 수 있다.

한동대 총장님이 오셔서 농촌돕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며 클린업 운동을 제안하셨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정결해지는 것이다. 또 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절한 농업기술들이 있는데, 한동대 적정기술팀과 협력해 버섯 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을 진흥하고 성경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20개 마을 추장들을 모아 성경적인 농사와 경제에 대해 가르쳤는데 현재 50개 마을로 늘어났다. 이들에겐 돈을 얻어 쓰는 게 당연한 일이다. 외국인에게 ‘This is Malawi’라고 말한다. 여긴 말라위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의미다. 구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손을 벌린다. 그래서 자립하도록 돕는 데 초



올해 여름 월드미션대학교 교수들이 말라위에 방문해 인턴십 코스를 강의했다.

점을 맞추고 있다. 말라위는 세계 최빈국 3개 중 하나다. 어린이들이 거의 굶고 하루에 한끼도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다. 옥수수 가루와 콩 가루를 3대1 비율로 섞고 설탕, 소금, 영양제를 넣어서 우리 재정이 되는 것만큼 먹고 있다. 토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으니 어린이들이 다 온다. 그럼 한끼를 먹고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가르쳐준다. 달라스의 침례교회가 교실 두개를 만들어줘서 전일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우려하고, 왜 우리는 안받아주냐고 떼쓰고 운다. 교실을 더 지어야 하고 하루 두끼를 먹여야 하니 재정이 필요하다.

이 사역을 좀더 확대 하려 한다. 우리 스스로 제분소를 만들고 우리가 농사지은 콩과 옥수수를 갈아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어린이들을 계속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이곳 집들은 지붕이 없고 흠뻑에 바닥에는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런 곳에서 드러눕다가 교회에 오니 어린이들이 아주 더러운 데 이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면 깨끗이 씻겨서 유니폼을 입고, 교회에 오면 먼저 손과 발을 씻도록 가르친다. 새로운 문화를 전하려는 것이다.

-말라위 사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첫번째는 목회자들의 변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말라위 인구의 80%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많은데 내가 왜 선교하러 가나’ 했는데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 기독교라 하지만, 예배 형식만 빌릴지 기독교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굶을 한다. 찬양을 하면서 돈을 바닥에 뿌리고 발로 밟더라, 무당이 낫할 때 똑같은 짓을 한다. 심자기를 달아놓아 교회라 하지만 제가 보기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정결한 예배를 드리자’는 운동을 했다. 한국에서 본 때

우 전통적이고 엄숙한 예배가 필요하다. 성경을 읽더니, 배가 고파 성경을 판다. 그러면 멧끼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주지 않고 교회에 비치만 해놨다. 이렇게 2-3년 씨름하니 기도할 줄 알게 되고 예배가 정결해지고 목회자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훈련받은 이들이 교회도 개척했다. 이게 열매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살렸다. 말라위로 죽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약을 못산다. 그래서 일단 열이 나면 검사를 받게 하고 약을 무료로 나눠준다. 얼마 전에 한 모녀가 광견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안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약이 너무 비싸서 선교를 와 있던 이천침리교회 단기선교팀이 즉석에서 모금을 했다. 우리가 직접 그 모녀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쓰러졌다. 다행히 약이 있어서 살렸다.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29개 마을 추장 그룹의 대표인 ‘대추장’이 나를 찾아 왔다. 그에게 ‘왜 왔는지’ 물으니, ‘백인들은 한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돕는다고 말도 안하고 들어오더니 와서 우물 파주고 어린이들을 가르쳐주는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며 ‘29명의 추장들이 감사를 전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방학 때 아이들이 다 모이는데, 아침 점심으로 먹이니 키가 자라고 얼굴에 살이 붙고 영적으로도 자라날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습에 감사하다.

-중국선교와 말라위 선교 감회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며 자비량 선교를 하다 모두 내려놓았다. 삭개오의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는 말에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셨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회개가 터졌다. 제 것인 줄 알고 쥐고 있던 재산들이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었다. 주디 한기자 **14년에 계속**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이영표 “축구선수로 꿈 이뤘지만 허무했다”

삶의 본질과 영원한 것에 대한 물음, 그리고 하나님

양화진문화원(원장 김성환)의 목요강좌 ‘청년, 인파’의 두번째 강좌가 25일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영표 축구해설위원이 강사로 나섰다.

먼저 이 위원은 “사실 전 국가대표가 꿈이었다. 유명해지고 싶었고 많은 돈과 인기를 갖고 싶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거라 생각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부러움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그 생각들이 힘든 시절 힘이 됐다”며 “마침내 국가대표가 됐다. 어떻게 보면 전 축구선수로서 원하는 꿈을 이룬 사람”이라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그러나 이영표 위원은 막상 꿈을 이뤘을 때 ‘당황했다’고 한다. 잠깐의 만족감 뒤에는 엄청나게 깊은 허무가 찾아왔다고 그가 갖고 있던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란 생각이 철저히 깨졌다. 그때부터 그는 ‘삶은 무엇인 지’, ‘어떻게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등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내 이름과 직업을 묻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겠다. 또 ‘왜 사는가’ 했을 때 굳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

이영표 위원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보통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태어난 순간과 죽는 순간이 있다. 하루를 산 건 하루만큼 죽는 거다. 죽음은 인간에게 절망”이라며 “결국 성공하든 돈을 벌든 그 끝은 죽음이고 절망이다. 그럼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이 위원은 ‘유언’에 관한 책의 한 구절을 읽게 됐다고 한다. 죽어가는 순간, 유언할 때 가장 하고 싶은 소중한 말을 남기는데 그때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 ‘투자해야 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죽어가며 하는 말은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용서하지 못했을까’ 이런 말이라고 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이 위원은 결국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공과 더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평판을 바랐던 저였다. 축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절망했다. 제 마음을 살피니 세상의 것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정 성공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 단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노력’에 대한 강조도 있지 않았다. 이 위원은 “열심히 해야 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끝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2부 순서에서는 이영표 위원과 정한조 목사의 대담이 이어졌다.

- 강연 경험이 많으실 텐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지.

이영표 위원: “노력, 믿음에 관한 질문들이 많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이에서의 갈등에 관한 질문,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한 질문도 많고요.

- 한계는 어떻게 극복했나?

이영표 위원: “놀라운 사실은 노력하면 발전 한단 사실이에요. 꿈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팔을 심으면 팔이 난다는 것은 감동적 이야기에요. 여기 해답이 있다 생각해요. 운동하며 느낀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정확하게 그 시간만큼 발전한다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시작할 시점을 몰라요. 그게 치명적 약점이지요. 내가 원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선 상대보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결국 견디고, 인내하고, 노



이영표 위원이 양화진문화원 목요강좌에서 삶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력하고, 고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노력, 고통 세 개가 만났을 때 아주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 노력에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영표 위원: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요.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하면 ‘왜 성공하지 않지’란 질문이 나오죠. 저의 핵심은 ‘노력하면 발전한다’예요. 그럼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노력이예요.

그런데 재능을 찾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 그 심리 뒤에 경제 논리가 있어요. 최소한 노력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고 싶다는 거죠. 지름길을 찾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능을 찾다 삶 끝내거나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요.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했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고 인내, 고통의 시

간을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고통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 고통의 양은 발전하는 양과 일치합니다.”

- 하고 싶은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 중 무얼 선택하고 싶나?

이영표 위원: “전 처음에 좋아하다가도 나중에 싫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한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를 보고 싫어진 경우가 있고. 상대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고 싶은 것과 잘 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부딪히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때로는 고통이 오면 멈추고 쉬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을 넘기면 노력에서 오는 고통이 쾌감으로 올 때가 있어요. 고통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김신의 기자

☞ 다음호에서 이어서

“모든 것 다 드려도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내 삶을 드렸다”

☞ 13면 '최재노 선교사'에서 계속

하나님께 소유권을 다 인정해 드렸다. 다 드렸는데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했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

소경이 눈을 뜨고 간질병, 소아마비가 낫고. 처음에는 두렵고 나중에는 너무 기쁘고 이후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저를 공식적인 스승으로 뽑으며 두 가지 부탁을 했다. ‘기도원을 세워달라’, ‘목사, 집사, 장로 같은 성직을 세워달라’였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안수를 공산당이 하도록 규정한다. 주의 종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유물사관론자들이 안수하나? 말도 안된다. 그래서 겁도 없이 안수했다. 그들이 모여 강건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갔다. 경

찰이 저를 잡으려 오면 저를 도피시켜주는 분도 있고, 저를 대신해 맞아주는 분도 있었다. 너무 재밌고 감사해서 떠나기 싫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네가 중국에서 많은 교회와 지도자를 세웠지만 그것은 혼련이다. 이제 흥해바다를 새로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였다. 모잠비크에서 설교하는데 딱 10분 설교했다.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면, 영어로, 영어를 포르투갈어로, 포르투갈어를 모잠비크어로 통역했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또 사막 한 가운데 있는 건물에서 밤에 설교하는데 전기가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잠을 안자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저를 아프리카로 가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밤 늦게 모임이 끝나서 그날 교회 강당을 반을 나눠서 남자 성도들은 이쪽에 여자 성도들은 저쪽에 모여 다 같이 잤다. 날이 밝아오는데 한 여

인이 지팡이를 들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애를 쓰는데 걷지를 못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자 여인이 쓰러졌다. 몸이 새털처럼 가볍고 완전히 굳어있었다.

저 대신 아내가 안수하자 이 여인이 힘을 얻고 걸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한국어로 ‘걸어! 걸어!’라고 외치며 춤을 쳤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보내는 것이 확실하다. 말이 안 통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깨달음이 왔다.

그러다 말라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눈을 뜨고 영화를 봤다. 말라위에서 성령의 핵폭탄이 터지는 장면이었다. 하나님의 빛이 퍼져 나가 온 아프리카를 덮었다. 이후 다른 곳에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말라위 호수가 넘쳐 흐르는 환상을 봤다. 말라위는 고지대에 도시가 있고 호수는 저지대에 있다. 그런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예언처럼 물이 넘쳐서

산을 넘고 도시를 덮는 장면이 보였다. ‘가난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말라위를 쓰실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말라위에 주신 원래의 복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무슬림을 뚫을 수 있을 것’이란 비전이 생겼다.

- 앞으로 비전과 선교비는 어떻게 모금하고 있는지.

첫번째는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 교실 두개가 있는데 교실 건물과 운동장,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30만 달러가 필요하다. 기숙사도 건축해 하나님의 사관생도로 기르고 정상적인 양질의 선진교육을 시키며 그중에 선별된 아이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계획이다. 땅은 6만평 정도 있는데 재정이 되는 만큼 건설을 진행하고 농장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먹고 가르칠 것이다.

또 무료진료를 위해 병원을 건축하고 있는게 완성하려면 약 4만 달러가 필요하다. 신학생 장학금이 필요한데 일대일이나 교회가 한 학생과 결연하는 방식으로 후원을 모집한다. 월드미션대학에 바로 보내주 시면 되고 한 학기에 1인당 1200달러 정도 넣어주시면 된다. 교사와 단기 및 장기 의료선교 및 의료지원을 해줄 사람과 행정과 통역 등 전문적으로 봉사해 줄 사람 등 인력지원도 필요하다.

후원안내
말라위: Standard Bank (Malawi)
Account Name: North West Mission
Account No.: 9100002688325
Swift Code: SBICMWMX
Branch code: 1031
Branch Name: Citymall Branch
한국: 우리은행 1005-202-550991
(예금주: 북서진선교회)
문의: malawi.nwm@gmail.com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근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in Religion)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열정의 문화 사역자 ich22 서기웅 대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23)

미친 듯이 살아가며 일하는 열정의 사람 서기웅 집사를 만났다. 그는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다. 열정의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의 열정과 열심은 청년시절 군생활 시절부터 상하 및 좌우의 사람들로부터 주목의 대상이었다. 전역 후 미국에 건너와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열정이 빛났다.

서기웅 집사는 스스로를 문화 사역자라고 소개한다. 청바지도 만들어 보았고, 의류 유통업도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문화 사업이다. 언뜻 보면 시시한 이벤트 같지만 내일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소통과 교류의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는 이웃을 섬기며 돕는 일을 도모한다. 그는 늘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열정을 불태운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다

그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 자신까지 5대 신앙인인 서기웅 집사 집안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정의 유산이요 자랑이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님과 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대구 시내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노방 전도단을 만났다. 구경하고 있는 서기웅 학생에게 여 전도사님이 다가와서 전도를 했다. "예수님 믿으세요!" 서기웅 학생은 "저 교회 다니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전도사님은 멈추지 않았다. 전도사님이 다시 물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질문을 남겼다.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 시절 출석했던 대구 삼덕 교회에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 시절 교회 선�후배들은 아직도 그의 열심을 기억하고 있다.

서기웅은 절박했고 사모함이 간절했다. 그는 찬양집회 및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대학생활 중에 입대를 했다. 의무

병으로 자대생활을 시작했다. 배치 받은 자대가 훈련이 많고 군기가 뻑뻑하기로 유명한 이기자 부대였다. 가장 추운 강원도 화천, 많은 훈련으로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대다. 직할 때에서 배치를 받아 사단 사령부 교회, 이기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이기자 교회에서 강태광 목사(현 World Share USA)를 만나 곧 의무대 군중병으로 임명을 받는다. 아주 신참 이등병이 직할대 군중병이 된 것이다. 그리고 곧 사단 군중부의 추천으로 625 기병 기동장병 영성 수련회(오산리 기도원)에 참가한다. 전입 신참에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오산리 최자실 목사 기념 기도원은 그에게 벨엘이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한다. 집회 후 부대에 복귀한 그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직할대 군중병 모임에 참석하고, 성가대 (곧 지휘자가 된다) 연습을 하고, 찬양단 연습을 했다. 군대생활 8할은 교회를 섬긴 생활이었다.

고달픈 미국 생활

군대에서 전역을 하면서 미국행을 선택했다. 그렇게 좋아했던 음악(성악)공부도, 가족들도 뒤로하고 Adult ESL school을 다니며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했다. 뭘 하며 미국 생활에 적응할까를 고민하던 서기웅은 디자인 공부를 한다. 선교사의 사명으로 패션계를 섬길 마음으로 험한 패션계에 뛰어든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청바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된 청바지 회사 생활은 고생, 보람, 재미 그리고 아픔이 뒤섞인 세월이었다. 헤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서도 청소를 했다. 점점 자리를 잡아 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막막함에 다리가 풀렸다. 힘든 시간이었다.

좌절, 은혜, 고통, 훈련 그리고 성숙

서기웅은 좌절의 자리에서 신을 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프리미엄 청바지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다. 프리미엄 청바지 업체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10불짜리 청바지처럼 생겼는데 300불에 팔린다. 물론 옷감의 질이 다르고 공정 과정이 다르다. 특별한 기술과 정성을 들인 특별한 청바지를 생산하여 유통시키

는 것이다. 프리미엄 청바지 업계에 진출한 서기웅 집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는다. 해고가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 업계에서 서기웅은 많은 경험을 한다. 회사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사업의 동업을 제안 받고 남미를 겨냥한 사업을 시작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모두 다 잃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마음도 잃었다. 한동안 쓰라린 고통을 느끼며 신음했다. 기도마저 나오지 않았다. 끔찍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 시간은 훈련의 세월이었고 자신을 다듬는 시간이었다.

영적 항구인 나성 순복음 교회를 만나다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찾아간 교회가 나성 순복음 교회였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것이었다. 잠도 오지 않는 고통의 세월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갔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 새벽기도 시간에 참석해서 멍하니 앉아 있다고 오곤 했다. 그래도 새벽기도는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유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설교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갑자기 힘이 솟았다. 다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군 생활 시절에 만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게 된 시간이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삶이 달라졌다. 삶에 활력이 넘치고 삶의 의욕이 생겼다. 새벽기도 시간이 기다려졌다. 기도가 터졌다. 수시로 기도하게 되었고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간에 밀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말씀에도 집중력이 생겼다. 성경이 읽혀지고, 설교시간이 기다려졌다. 새 삶을 사는 기분이었다. 나성 순복음 교회와 진유철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미국에서의 영적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축복 축복 축복 그리고 나눔

영적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다.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 2층에 허름하고 좁은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에서 옷 가게를 시작했다. 간판도 없었고, 변변한 광고도 한번 한 적 없는데 사람들이 물려왔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그간의 상처들을 씻어내고 회복을 누렸다. 놀라운 축복의 끝은 만남이었다.



ich22(Immortal Christ Humility 22) 서기웅 대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일을 꿈꾸게 되었다. 바로 문화사역이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옷가게 주차장에서 소매상들, 공연자들을 초청해 공개 시장을 열었다. 상품과 문화가 유통되면서 삶도 나뉘진다. 소통을 통해 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돕는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소통하고 교류하지만 서기웅집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본다. 선교적 사명이다.

축복의 공간을 준비하며

서기웅 대표는 금번 12월에 또 하나의 큰 사업을 준비한다. 물론 소통과 교류의 장이다. 이미 알려진 행사라 많은 사람들이 담벼돌고 있지만 진짜 좋은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 이벤트가 되기를 준비하며 기도한다.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비전과 기도제목

서기웅 대표는 늘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기도제목들이다. 우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남편과 아빠가 되고 싶다.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안정이 더 긴요하다.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 너

무 중요하다. 믿음으로 가정을 든든히 지키게 하옵소서! 서기웅 집사는 오늘도 기도한다.

두 번째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에도 충실하기를 기도한다. 충성스럽게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문화 사역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기도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되기를 기도한다. 서기웅 집사는 눈만 뜨면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일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선교와 찬양의 대상이요 동역자들이이다.

그는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힘차게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기 때문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기 때문이다. 지난날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크게 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하늘을 바라본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방법이요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열어 주실 내일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강태광 편집위원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HANMI PIANO

한인교회에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www.hanmipiano.com



The CF Series
CFX



교회에 적합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YAMAHA 피아노를
Up to 75% Off 된
특별한 가격에 드립니다.

BIG SALE

교회 피아노 Tuning 서비스가 필요 하시다면
한미피아노에서 **40년 Experience** 이상의
최고 **Technician**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10월 한달 동안만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Grand Piano Tuning **\$150 → \$80**
Upright Piano Tuning **\$100 → \$60**
제공해 드립니다.



SILENT Piano™



Clavinova®

* Tuning 외 다른 수리가 필요할 경우 파트값만 받고 Free로 수리 해드립니다.

교회예배 찬양팀용 YAMAHA KEYBOARD



**교회 예배용
KEYBOARD**



개척교회, 소규모 교회등 새벽기도, 금요일예배,
구역예배 및 가정예배에 피아노 반주가 필요하지만,
연주자 없이 찬송가 연주가 되는 **YAMAHA DISKLAVIER**
신제품 피아노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신 후 많은 호응과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 연주 가능한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 좋은 기회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한미피아노가
한인교회에 드리는 특별한 가격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신뢰·정직을 약속하는 한미피아노
피아노와 함께한 45년의 잔처럼
한미피아노는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변함 없습니다.

YAMAHA **disklavier®**

알림

한미피아노는 남가주에서 **유일한 한인 야마하 공식 딜러**
(YAMAHA PIANO AUTHORIZED DEALER)입니다.
공인딜러가 아닌곳에서 YAMAHA피아노를 구입하시면
YAMAHA에서 제공하는 10년 FACTORY WARRANTY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한인 유일의 YAMAHA 공인딜러
한미피아노

지금 바로 한미 피아노에 전화로 문의, 예약해 주세요!
▪ **LA T.(213)483.8949**
317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 **OC T.(714)891.5551**
794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1